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⑧

〈지난호에 이어〉

신용이 최고의 재산이다

회사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

정성을 다해 개발한 열처리 기술이 당장 큰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곧바로 닥쳐온 경기 침체로 제품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처리 기술개발과 그 기술의 생산 적용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 경영난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래저래 1971년은 화천으로서 시련기였고, 이 시련은 1972년까지 어어졌다. 화천 역시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을 단기 고리 사채에 의존하고 있었다.

1년이 넘게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 기계가 120대에 이르렀으며, 사채규모가 사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어났다. 새로운 사채를 끌어다가 앞서 사채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일부 인력감축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입사일이 늦은 순서대로 감원하되 회사가 정상화되면 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약속을 했다. 대상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었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신용을 지켜라

1972년 8월 3일 이른 아침이었다. 배달된 신문을 보니 정부가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기업체들이 쓰고 있는 사채를 모두 동결시켰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정부가 하는 일에 거역을 한다거나 따르지 않은 일이 별로 없었다. 때로는 그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도 있었다. 어떤 때는 회사가 생사의 기로에 선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정부의 시책을 내놓고 비방하거나 원망해 본 일조차 없다. 내가 이처럼 정부를 불평 없이 따른 데에는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1972년 8월 3일, 정부는 고리사채(高利私債)에 허덕이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압박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8·3 사채동결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 인정과 믿음으로 도와준 사람들이다. 새벽같이 내게 전화를 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던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다행히 사채신고 건은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사채동결 조치로 회생의 기회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도 큰 힘을 얻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화천은 이 조치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었다. 그 혜택을 외면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결정에 대해 이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평소 자식들이나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사람은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못되게 해서 내가 잘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가르친다. 나는 옛날 친구가 고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의 아들을 회사로 데려다 일을 배우게 하고 월급을 줌으로써 그 친구에게 베풀지 못한 것을 그 자식에게 대신 베풀어 인간관계를 유지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 나는 "웬만하면 참아라.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먼저 참고 보면 반드시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고 조언하면서 서로의 비위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삶이 편하고 발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나의 처세 방법이 부지불식간에

화천의 불문율로 되어 첫째 '끈기가 있어야 하고', 둘째 '정직해야 하며', 셋째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전 임직원의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다 보니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끈기·성실·정직"이 우리 화천의 사훈(社訓)이 되어버렸다.

공작기계는 화천이라야

1972년에 들어오면서 희망적인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경공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하는 구상을 구체화하자 타 분야보다 기계공업 분야의 침체가 먼저 풀릴 조짐을 보였던 것이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충분한 기능인력의 확보가 필요했으므로 공업계 고등학교들의 공작기계 실습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실습용 공작기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화천이 생산하는 기계들도 서서히 판매호조를 맞게 되었다.

쌓였던 재고들이 팔려나가면서 공장은 활기를 띠었고 여기에다 8·3 조치까지 단행되자 자금 사정도 한결 나아지게 되었다. 1972년을 넘기면서 화천의 재고는 거의 다 팔렸다. 큰 몫을 한 고객은 전국의 공업고등학교로, 화천의 제품은 성능이 우수하다는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던 정부에서는 한독직업학교(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수한 기능인력을 가장 많이 배출한 비결에 대해 물었는데, 당시 이 학교 교장(전천수)은 교사와 학생들의 노력도 컸지만 성능 좋은 기계로 훈련시킨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 기계가 화천에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화천에서 생산하는 공작기계의 성가가 매스컴을 타고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전국의 공업계 고등학교 관계자들의 공장 방문이 줄을 이으면서 생산 주문이 쇄도했다.

한번은 우리 회사를 찾아온 부산기계공고의 전천수 교장이 자기 학교를 방문한 박 대통령에게 좋은 척(chuck)이 없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진언했다는 얘기를 했다. 척이란 공작기계에서 가공할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수족 같은 부품이다. 그래서 공작기계 자체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해도 척의 품직이 나쁘면 가공할 공작물의 정밀도도 자연히 떨어진다. 좋은 척은 공작기계의 성능을 함께 높여주어 공작물의 가공 품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화천은 1977년 11월에 화천척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의 세계적인 척 전문 메이커인 데이고쿠(帝國)척 주식회사와 기술제휴를 맺어 1978년부터 척 생산을 본격화하였다.

청와대의 부름과 공작기계 육성 모델업체로 선정

1973년 8월 어느 날이었다. 한 40대 남자가 공장을 찾아왔다. 그는 2시간이 넘도록 묻기만 하고 내가 대답하는 내용을 열심히 적은 뒤에 다음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훌쩍 공장을 떠났다. 그가 청와대 경제수석이 파견한 비서관이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73년 말 경이었다. 그때 나는 경제수석의 갑작스런 요청을 받고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는 심정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오원철 경제수석은 중화학공업 위주로 정부가 산업정책 방향을 전환한 배경과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⑲

(규원사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後漢書》 曰: [東沃沮, 在高句麗.蓋馬太山之東, 東濱大海, 北與 婁接.] 註云: [在平壤城西.] 此, 漢土眩學之(忘)[妄]語也. 婁, 乃肅愼後身, 東沃沮, 又在今咸鏡之地, 則蓋馬之(謂)[爲]太白, 可知. 且 《麗史·列傳》 曰: [女眞, 本高句麗之部落, 聚居于蓋馬山東.]云, 當時女眞, 明在白頭山之東北, 蓋馬之爲白頭, 明矣. 《魏書·勿吉傳》 曰: [國有徒太山, 魏言太白, 有虎豹熊狼不害人, 人不得上山 溺…]云云. 《北史·勿吉傳》 [曰亦](亦曰): [國有徒太山, 華言.太白, 俗甚畏敬之.] 《唐書》 曰: [粟末部居最南, 抵太白山, 亦曰徒太山, 與高麗接.] 又曰: [黑水發源于此.] 《明一統志》 曰: [長白山在三萬衛東北千餘里, 故會寧府南六十里, 橫 千里, 高二百里, 其有潭, 周八十里, 淵深莫測, 南流爲鴨綠江, 北流爲混同江, 東流爲阿也苦河.]云. 然則, 不咸 蓋馬 太白 徒太 長白等名, 皆爲同山異名, 而歷代方言之異也. 又 《高麗史》 [光宗十年,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居之.]云, 則白頭之名, 始見於此. 而蓋字之音, 近[白於](於白)字之意; 東語, 馬頭亦同訓, 蓋馬, 白頭之異字同意亦可明辨, 而白頭之名, 其來亦尙矣.

내가 일찍이 여러 서적들을 두루 살펴보건대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 자못 많았다. 《산해경》에 이르기를 [대황의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불함(不咸)이라 하며 숙신씨의 나라가 있다] 하였으며, 《후한서》에 이르기를 [동옥저는 고구려의 개마태산(蓋馬太山)의 동쪽에 있다. 동으로 큰 바다를 접해 있고 북으로 읍루와 더불어 접해 있다] 하고는 그 주석에 [평양성의 서쪽에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한나라 선비가 잘 알지 못하고 배웠기에 생긴 망령된 말이다. 읍루는 곧 숙신의 후신이며 동옥저 또한 지금의 함경의 땅에 있었으니 '개마'가 '태백'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사.열전》에 이르기를 [여진은 본래 고구려의 한 부락이었는데 개마산의 동쪽에 모여 살았다]라 하였으니, 당시의 여진이 분명히 백두산의 동북에 있었으므로 '개마'가 '백두'가 됨은 분명하다. 《위서.물길전》에 [나라에 도태산(徒太山)이 있는데 위(魏)나라 말로는 '태백'이라 한다. 범과 표범·곰·승냥이 등이 있으나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들은 산위에 올라가서는 방뇨를 하지 않았다] 하였고, 《북사.물길전》에도 역시 [나라에 도태산(徒太山)이 있는데 중원의 말로 '태백'이라 하며, 풍속에 그것을 매우 삼가며 공경한다]고 하였다. 《당서》에는 [속말부가 가장 남쪽에 살고 있는데, 도태산(徒太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태백산과 맞닥뜨린 곳에서 고려와 더불어 접해 있다] 하였다.

《괄지지》에는 [말갈은 옛 숙신이다. 그 남쪽에 백산(白山)이 있는데 새와 짐승이며 풀과 나무가 모두 희다]라 하였고, 《금사.고려전》에는 고구려 이래 말갈의 일을 기술하며 [흑수말갈이 옛 숙신의 땅에 거주하였는데 '백산(白山)'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으니 곧 '장백산'으로서 금나라가 일어난 곳이다]라고 하였다. 엽융례(葉隆禮)의 《요지(遼志)》에는 [장백산은 냉산(冷山)의 동쪽 1천여 리에 있으며 대저 백의관음이 기거하는 곳이다. 그 산 안의 짐승은 모두 희다. 사람들은 그 곳을 더럽힐까 염려하여 감히 들어가지 않는다]라 하였고, 또 [흑수(黑水)가 그 곳에서 발원하였다]라고 하였다.

《명일통지(明一統志)》에는 [장백산은 삼만위(三萬衛) 동북쪽의 1천여 리에 있으니 옛 회녕부(會寧府)의 남쪽 60리에 있다. 좌우로 1천리에 뻗어 있고 위로 2백리를 솟아 있으며, 그 곳의 정상에 못이 있는데 주위는 80리이며 못은 깊어서 측량할 수 없다.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서 혼동강이 되며 동쪽으로 흘러서 아야고하(阿也苦河)가 된다] 하였으니, 불함·개마·태백·도태·장백 등의 이름은 모두 같은 산의 다른 이름으로 역대 방언의 차이점일 뿐이다.

또 《고려사》에 [광종(光宗) 10년에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몰아내어 살게 하였다] 하였으니, 곧 '백두'의 이름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보인다. '개(蓋)'의 음은 '백(白)' 자의 뜻과 가까우며, 동방의 말에 '말(馬)'과 '두(頭)'는 같은 새김이기에 글자의 뜻으로 새기면 '개마(蓋馬)'와 '백두(白頭)'가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뜻임이 분명한 것이 되므로 '백두'라는 이름의 유래 또한 오래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총재단회비

△권혁기(부총재)	10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혁채(서울)	20만원
△권순팔(안양)	20만원
△권경섭(안동)	20만원
△권영건(안동)	20만원
△권도현(서울)	20만원
△권용호(포항)	20만원
△권오순(영양)	40만원
소 계	160만원

▣ 대의원회비

△권재철(부산)	10만원
△권홍기(청송)	20만원
△권혁조(안동)	10만원
△권영주(금천)	10만원
△권영복(용산)	10만원
△권오창(원주)	10만원
△권호규(안동)	10만원
△권년환(안동)	10만원
△권태근(수원)	10만원
△권인순(대전)	10만원
소 계	110만원

▣ 찬조금

△부산종친회	30만원

합계 400만원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⑤

▣ 김 영 현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난호에 이어>

슬프다!

사람이 천지간에 능히 존립하여 금수와 다른 것은 윤리가 있기 때문이다. 군신지의는 해와 별과 같이 빛나고 한 몸을 버리고 의를취함이 군자의 바라는 바이다.

이제 왜적을 대하여 겁을 먹고 깃발을 버리고 먼저 도망하는 자, 임금을 버리고 내 몸만을 위하는 데 지나지 않으니 구차히 살았을 뿐 그추한 꼴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국사가 날로 험해지면 비록 들쥐와같이 띳집에 숨어서 살기를 꾀한들 어찌 그것마저 될 수 있겠는가.

또 개나 돼지에게 엎드려 절하는 꼴과 같은 태도인데 어찌 기꺼이 또떳떳한 태도로 신첩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천륜이 상존하고 국법이 엄연하니 패장에 대해서는 정해진법률의 적용을 받아 그 몸은 도리깨질을 당하여 세상에서 크게 도륙될것이며, 처자는 관에 몰수되어 노비가 될 것이고, 귀신은 신주가 없어질것이니 누구와 더불어 일사보국하고 영화를 누릴 것인가.

권율은 선인의 가르침을 받아 임금 섬기는 법도를 조금 알기에 군사를 쫓아 법을 잃은 뒤로 더욱 자신을 위로할 길 없어 매양 음식을 대하여도 넘어가지 않고, 잠을 자려 해도 근심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나와 종군한 것이 부끄럽고, 또 우러러보면 신명에게 부끄럽다. 살아서 국가에 조금이라도 죽음으로 보답하지 못한다면 지하의 선인들을 뵈올 낯이 없다.

그리하여 지금 죽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들어 사람을 보는 것은 2~3명의 동지들과 함께 적을 섬멸하려는 계획이니, 다시 원컨대 여러분은 나의 자택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망령된 말을 용서하여 창을 잡고 같이 전진할 뿐 물러서지 말지어다. 격문은 이와 같으나 글과 말로는 나의 뜻을 다하지 못한다.

참으로 비장한 격문이다. 왜적의 침략에 따른 풍전등화의 위기를 진솔하게 밝히면서 의병봉기를 촉구하며, 서둘러 병사를 모집하고 군기를 정비하여 왜군 토벌에 참여할 것을 천명했다. 그다음 바다를 건너 적지인 쓰시마까지 공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왜적에게 겁을 먹고 도망하거나 패배한 장수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릴 것을 선언했다.

이로써 인근 고을에서 1천여 명이 응모해 와 광주에서 모집된 5백여 명과 합쳐 7월 초에 총 1천 500여 명의 군사를 인솔하고 경상도와 경계인 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광주목사 권율이 전라도 각 수령에게 이와 같은 격문을 보낼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애국심과 용기, 임금에 대한 충성심, 용인패전 이후 전라감사 이광의 지도력 상실이 가장 크게 적용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국왕 주변에 류성룡과 윤두수, 당시 병조판서로 있던 그의 사위 이항복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권율이 전라도 순찰사 겸 감사(관찰사, 방백)가 되어 서울 수복을 위해 전라도 군사를 이끌고 북진하면서 양호 도체찰사 정철과 작전 상 이견이 있었을 당시 임금이 있는 의주 행재소와 직통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겠다. 어떻든 권율은 이 격문으로 전라도 전 지역에 명성이 알려지면서 전라감사 다음가는 위치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박광옥, 의병 모집 발 벗고 나서다

광주로 돌아온 권율이 의병을 모집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적극 지원한 이가 있었다. 바로 광주사람 박광옥朴光玉, 1526-1593이다. 그는군사 모집은 물론이고 군량·병기 조달까지 적극 지원하게 된다. 당시그는 광주의병도청의 대표인 소모접제를 맡고 있었다. 그는 전라도순찰사 이광의 공주 퇴각 직후 고경병, 김천일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로 합의한 뒤 의병소집에 앞장섰다. 그는 의병도청에서 일을 보고 있는 간부와 친족, 제자들에게 인근마을과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케 했다. 또인근 고을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모집했다. 이에 흩어졌던 군사들이 점차 호응해 왔다. 이때 얻은 병사를 모두 권을 진중에 배속시켰다. 『회계집』에는 정예병력 수천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회계집』·『미수기언』

이에 앞서 권율이 2차 근왕병 중군장으로 참전할 때 광옥은고경명과 함께 인근 마을을 쫓아다니며 설득하여 흩어진 군사를 모아 경명의 아들인 종후와 인후를 시켜 그의 진중에 인계하기도 했다. 『정기록』

그 뒤에도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키자 의병도 청에서 모집한 정예병력 3백여 명을 모집하여 고경명에 인계하고, 담양에서 군사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병 때문에 직접 참전하지는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후방에서 지원활동을 앞장섰다. 〈다음호에 계속〉

나라의 보배인 신하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한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그에 걸 맞는 인재가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위진남북조시대에 북방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북위(北魏)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실 북위 이전에도 북방지역을 통일했던 왕조가 있었다.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다. 그러나 그는 북조를 통일한 김에 남쪽까지 먹어치우려고 100만 대군을 몰고 남조인 동진(東晉)을 공격하였지만 비수(淝水)에서 참패하고, 나라도 망했던 일이 있다.

그러므로 북위가 한 때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위가 북조를 통일한 다음에 이 뒤를 이어받은 수나라가 남조까지 멸망시켜 중국을 400년 만에 통일하였으니, 북위는 그들의 성공을 잘 지키고 발전시킨 셈이다. 그런데 성공을 지키려면 그에 걸 맞는 인재가 있었다.

북위가 통일하고 10년 쯤 되는 시기에 고필(古弼)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는 백관을 통괄하는 태자를 보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한 번은 황실이 갖고 있는 원유(園囿)를 줄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왕조시대에는 쉽지 않은 정책이지만 이를 수립하여 북위의 황제를 만나려고 들어갔다.

이때에 황제는 급사중인 유수(劉樹)와 한 참 바둑을 두고 있어서 한참 기다려도 결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고필은 갑자기 일어나서 황제와 바둑을 두고 있는 유수의 머리채를 잡아서 마루 아래로 내동댕이치고 등짝을 때리면서 말하였다. '조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실로 너의 죄이다!' 이를 본 황제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바둑돌을 던지면서 말하였다. '주청하는 일을 듣지 않은 것은 짐의 잘못인데, 유수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를 내버려 두라!'

이일이 있고 나서 고필은 관을 벗고 맨발로 황제에게 무례하였던 것에 대하여 벌을 내려 달라고 하였다. 황제도 고필의 행동이 자기 앞에서 무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필이 나라를 위하여 했던 행동임을 이해하고 용서했다.

그 후에 고필은 벼슬이 올라서 상서령이 되었는데, 황제가 사냥을 떠나면서 모든 업무를 고필에게 맡겼다. 황제는 자기를 따라 사냥하는 병사들에게 살찐 말을 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고필은 말라빠진 말을 내주었다. 또 황제의 지시를 어긴 것이어서 황제는 화가 났다. '필두(筆頭)란 놈이 감히 짐을 깎아내리는구나! 짐이 대(臺, 상서대)로 돌아가면, 먼저 이놈의 목을 벨 것이다.' 필두란 고필의 머리가 붓같이 생겨서 붙여진 별명이니 고필을 가리키는 말이고, 황제는 사냥에서 돌아가서 고필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고필의 관속들은 자기들도 따라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벌벌 떨었다. 그러나 고필은 태연하였다. 황제가 사냥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게 한 것도 죄이기는 하지만 살찐 말을 내 주었다가 만약에 전쟁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 죄는 더욱 크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의 장래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옳으니 비록 그것으로 죽더라도 괜찮다고 하였다.

사실 이때에 북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북쪽으로 연연(蠕蠕, 흉노의 일종)이 있어서 강성해지고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송(宋, 유송)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북위로서는 이를 항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였다. 그래서 고필은 황제의 사냥놀이보다 국가의 안보를 더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북위의 황제는 오히려 감탄하면서 '이 같은 신하가 있다는 것은 나라의 보물이다.' 라고 하면서 옷 1벌과 말 2필 그리고 사슴 10마리를 상으로 하사하였다. 고필에게는 이러한 일화가 많다. 덕택에 북위는 천하를 통일하는 기초를 닦은 것이다. 요즈음도 이러한 관리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다음호에 계속〉